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공동생활 2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생활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율놀이가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에서 개강여행을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충북 옥천에 있는 장령산자연휴양림으로 다녀옵니다.
- 공동체학교 전반기 전체 학부모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공동체학교 후원회 총회로 모입니다.

- 선교공동체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다음 주일에 목적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은 총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강단을 꽃으로 : 인치명 권사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1 호

2023년 3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생활 25주년을 기념하며

멋쟁이학교의 2023년도 1학기가 시작된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1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모두는 함께 지내게 될 1학년들을 기대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1학년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좋은 싫든 많은 시간을 함께 살텐데 신경쓰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그렇게 뚜껑을 열어본 1학년들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고, 온갖 소문과 정보가 학생들 간에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도와주어야겠다는 멋쟁이도 있고, 강하게 커야 한다면서 엄한 태도를 취하는 멋쟁이도 있고, 책임은 둘째치고 이제 자신이 선배가 되었다는 감격에 취해 어깨에 힘을 잔뜩 주는 멋쟁이도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10대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장기이기에 어느새 그렇게 되었나 싶도록, 예전에 알던 모습에서 불쑥 달라져있는 경험들을 반복하곤 하지요. 그 끝에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런 강렬한 변화의 모습은 함께 살아감에서 촉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장소,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을 몇 년간 같이 하면 좋은 싫든 함께 지낸 세월들로 서로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술밥을 먹으며 같은 경험들을 공유했던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뼈죽뼈죽하게 날카로운 자아가 좁은 곳에서 부딪치며 겪는 온갖

일들을 통해, 구성원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고스란히 내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멋쟁이 학생들은 새로운 구성원을 파악할 때에, 적어도 '도보여행'을 함께 다녀올 때까지 전체적인 평가를 보류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의 정수는 고난을 겪을 때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인간적입니다. 서로 질투도 하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며 의심이 많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저 자신에게서는 물론이고 멋쟁이학교 안에서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뭐만 하면 왜 그런지 묻는 멋쟁이, 우렁차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멋쟁이, 어떻게든 힘든 일에 빠지려고 갖은 수를 쓰는 멋쟁이 등등.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서로를 돕고 협력하길 거듭하며, 멋쟁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경험합니다. 새로운 구성원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셈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몸이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의 뼈쪽한 자아로 상처를 입더라도, 성숙의 길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공동생활이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아의 경계선이 자주 국경을 맞대는 환경에서 그만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듯, 경력을 자랑하듯, 휘청거리고 어려움도 참 많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며 떳떳해도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25년, 그리고 그 이상을 마음속으로 기다려봅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08, 210 / 600

기도 : 이현숙 집사

성경 : 열왕기상 6장

제목 :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치다

1. 성전의 외관과 내부장식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해석: 약속에 따른 건축을 했다.
적용: 교회의 일을 할 때, 약속(신앙)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한다.
2. 성전을 지을 때 돌,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올리브나무를 사용하였고 금을 입혔다. 좋은 것으로 지었다.
해석: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적용: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자.
3.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 율례를 따라 순종하고 따르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해석: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다.
적용: 성전에서 힘을 얻어 희망, 소망, 기쁨의 삶을 살자.

공동생활 2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공동생활 2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공동생활 2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까 생각하다가 그리운 옛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997년 먼저 무림리에 입성한 나 집사님과 교인들은 자연에 배당을 짓고 계셨고 다음 해인 1998년에 저희 가정을 비롯한 세 가정 아홉 사람이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무림리는 깡시골이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밭이고 거름 냄새가 진동했으며 밥상을 차려 놓으면 밥, 반찬 위에 파리 떼가 새까맣게 앉아서 손을 휘저어야 겨우 먹을 수 있었지요.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같으면 절대 못 먹는다 할 텐데, 그때는 그 밥도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하시던 남자들의 얼굴은 새까맣다 못해 반짝거렸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몸은 많이 지쳤지만 모두 그토록 찾아다니던 새로운 터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종로에 있던 사랑방이 시골로 가는 것도, 어려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도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하다. 저러다가 그만둘 거다'라는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옳은 길인 것은 아는데 왜 힘든 길을 갈까?'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가정이라 겁 없이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는 서로 다름으로 어려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25년을 돌아보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객관화하도록 훈련을 계속하셨고 혼자서는 어렵고 불가능했던 일도 주님 안에서 함께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공동생활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하고 강한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사는 거 분명 어렵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이월영 사모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예레미야서 29 : 11-14a 인도자
3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10 : 12,14 인도자
87, 14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사도행전 2 : 42-47 설교자
주님의 평화가 사랑방
“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2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식구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사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

공동생활의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
에게 임하시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
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새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사
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한마음
이 되어서 공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마음의 변화.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자, 이전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욕망을 좇아 살아가
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
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
을 찾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사귀는 일과 순전한 마음으로 빵을 떼고 두려운 마
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사
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과 신분과 재력과 상관없
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얻은 형제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자
매를 보아야 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이
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
으로 모든 교제를 이루어 나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새학기의 첫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모임 시간에 하는 활동을 하루에 하나씩 늘려 말씀도 외워보고 서로 칭찬도 해보고 수호천사도 정합니다. 그루터기부터 가로방까지 공동체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만나는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동체 놀이시간에 몇몇 놀이를 해보며 함께 놀이를 하려면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생들이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생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놀이규칙을 단순하게 해서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놀이를 할 때마다 규칙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의논하느라 흐름이 종종 끊어지곤 합니다. 그래도 즐겁게 놀입니다. 동생들은 손가락 잡기, 반찬은 포크로 먹기, 바른 자세로 앉기, 가위질하기, 모임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참여하기 등등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스ㅇ이가 넘어지며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이를 동안 반깁스를 해야 했는데 친구들이 외투정리와 의자정리, 손씻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전에는 몇 친구가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면 다른 놀이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동시에 두 가지 놀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 적응하느라 아직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와 동생들을 배려하려 나름 마음을 쓰는 모습들입니다.

< 교사 : 전승희 >

어린이학교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서 아이들의 옷차림이 각각입니다. 낮엔 따뜻한 햇살이 내려 트램펄린도 타고 축구도 하는데 아이들의 옷차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오전 둘째 시간엔 작년과 다르게 연산시간을 넣어 아이들의 기초 학습을 보강하는 시간을 시간표에 추가 했는데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13일(월)~ 15일(수)까지 충북 옥천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며 주위의 문화제를 탐방하고, 반별 식구들과 데이트도 하고, 함께 게임도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려합니다. 금요일 달는 모임 시간에 아이들은 여행을 기대하며 들뜬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서로를 더 친하게 알아가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본격 멋쟁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성을 다할 동아리와 일 년 동안 정신을 다 할 악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진할 M.S.D.(MJE Self Design)까지 더 멋진 멋쟁이가 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첫 열린 수업은 전반적인 생활 안내부터 삶의 표현인 식사 예절과 삼정 생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태일 교장선생님께서 멋쟁이 교양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 귀가 전에는 한 학기 동안 멋쟁이를 위해 솔선수범할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멋쟁이 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장으로 진시우(5학년), 부회장으로 이은빈(5학년) 멋쟁이가 당선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방, 사물함, 독서실 자리부터 새 책과 새로운 배움! 익숙함 속 새로움을 느끼며 설렘으로 생활하는 멋쟁이 학교입니다.

< 교사 : 장성아 >

공동생활, 지혜가 예리해지는 생활

오늘은 공동생활기념주일 25주년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랑방에 왔을 때 공동체가 뭘지 공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는데 벌써 16년이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언니네 가정에서 함께 살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라송추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후로도 다양한 분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사는 곳도 교회 밖에 있는 집에서도 살아보고 교회 안에서도 살아보고 그루터기에서도 살아보고 삶의 자리와 모양이 다양하게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같이 사는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같이 살았던 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랑을 받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 진용이가 생겼을 때 나집사님이 삼겹살 파티를 여시고 “이 고기 왜 먹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던 일도 있었고, 진용이가 태어난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날 아침에 같이 살던 싱글 선생님들이 미역국을 끓여주어 짜디짠 미역국을 먹고 아기를 낳으러 간 일도 있었습니다. 진용이가 아기 때부터 제가 살던 집 거실에서 주일 오후마다 쉬다 가시던 무림사랑방 어르신들은 아직도 진용이랑 민용이가 지나가면 ‘아이구 많이 컸다’ 하시면서 예뻐해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끼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언 27장 17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인가보다 했었는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과정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공동생활을 해 오신 분들, 또 공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생활을 통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삶에서 오는 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혜가 예리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524장, 254장
성경 : 시편 32편
말씀 : 죄의 고백에 따른 은혜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단과 사이버의 피해자들을 위해>
JMS의 일화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신이 버린 사람들"로 인해 공분이 높고 일고 있다. 왜곡된 믿음과 탐욕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보나콤(보은) 공동체를 위해>
 - 1) 지체들의 건강과 활동을 지켜주시기를
 - 2) 진행하는 사역이 형통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공동생활 25주년 기념을 위해
 - 2) 연령별사랑방 방모임의 시작을 위해
 - 3) 사순절을 잘 보내도록
 - 4) 환절기 건강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생활 25주년 기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 생활 공동체 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때 보다 열심히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냉,난방이 필터도 닦고, 예배 때 사랑방 식구들이 앉게 될 의자도 꼼꼼히 닦으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주일 예배 성가대 찬양도 준비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한 형제요 자매됨의 고백입니다.

기념 주일이 이 뜻을 더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